

“하나님 사랑” (5대 강령 시리즈)

(마태복음 22:34-40)

2025년 표어

“사랑으로 함께 일어서는 능력의 공동체”

“내 개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5:2)

사랑의 5대 강령: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다음세대 사랑, 서로 사랑, 영혼 사랑

일반전회	교회학교
세력기도회 매주일 토 오전 6시	오전 예배부 주일 오전 10시
드림 워십 주일 오전 8시	영아부 주일 오후 12시
글로벌 워십 주일 오전 10시	유아부 주일 오후 12시
블레싱 워십 주일 오후 12시	유치부 주일 오후 12시
청년예배 주일 오후 12시	초등부 주일 오후 12시
영아예배 주일 오전 10시	중고등부 주일 오후 12시
수요예배 주일 저녁 8시	리브미션부 주일 오후 12시
수요종보기도회 수요일 저녁 8시	세너리한국교회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우 아 부 최수진 시모 (917)526-1344	1, 2선교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우 치 부	창2선교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초 등 부 최주안 전도사 (646)662-0691	3 선 교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중 고 등 부 손주영 전도사 (917)737-4237	4 선 교 회 이재환 목사 (646)398-0228
리 브 미 션 박명애 전도사 (718)737-1643	5, 6선교회 이재환 목사 (646)398-0228
청 년 부 김성준 목사 (617)949-1118	허스패닉 이호성 목사 (646)549-6043
영 아 회 중 톨 김 목사 (201)679-2924	네 팔 대니엘 바츠넷 목사 (201)927-0220
행 정 최순성 목사 (917)246-9493	몽 골 톨돌름 목사 (646)467-2675
양 육 최순성 목사 (917)246-9493	다민족지역 양영란 전도사 (917)533-9511
새 키 축 부 최순성 목사(창) 박수진 전도사(부)	시니에서역 이재환 목사 (646)398-0228
신 범 부 박수진 전도사 (646)642-9331	

우 아 부 최수진 시모 (917)526-1344	1, 2선교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우 치 부	창2선교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초 등 부 최주안 전도사 (646)662-0691	3 선 교 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중 고 등 부 손주영 전도사 (917)737-4237	4 선 교 회 이재환 목사 (646)398-0228
리 브 미 션 박명애 전도사 (718)737-1643	5, 6선교회 이재환 목사 (646)398-0228
청 년 부 김성준 목사 (617)949-1118	허스패닉 이호성 목사 (646)549-6043
영 아 회 중 톨 김 목사 (201)679-2924	네 팔 대니엘 바츠넷 목사 (201)927-0220
행 정 최순성 목사 (917)246-9493	몽 골 톨돌름 목사 (646)467-2675
양 육 최순성 목사 (917)246-9493	다민족지역 양영란 전도사 (917)533-9511
새 키 축 부 최순성 목사(창) 박수진 전도사(부)	시니에서역 이재환 목사 (646)398-0228
신 범 부 박수진 전도사 (646)642-9331	

단체 기도교구(타인위너 케이블 487) 매주 금요일 저녁 9시(만방성)
토요일 오전 11시(예향성)

2025년 1월 19일	
1부 예배 8:00am 2부 예배 10:00am	3부 예배 12:00pm
드림 워십 인도: 김성준 목사	블레싱 워십 인도: 김성준 목사
글로벌 워십	신앙고백 시도신경
안도: 김성준 목사	안도: 최순성 목사
안도: 최순성 목사	안도: 김성준 목사

*경배와 찬양 Worship Songs	두나미스 찬양팀	신앙고백	시도신경
*기원 Invocation	인도자	경배와 찬양	블레싱 찬양팀
*성서교과 Bible Study	제 3편 "시편(Psalms) 4편"	기도	김선터 집사
*찬양교과 Worship Songs	시도신경 Apostles Creed	공동체 소식	영상
찬송 Hymn	새208장(통246) '내 주여나리여' "I Love Thy Kingdom, Lord"	성경본독	갈 5:22-23, 6:9
기도	범용복장로 (Elder) Hong Bki(Bang)	*봉헌	"나 무엇과도 주님을"
성경본독	마태복음(Matthew) 16:13 - 20	성경	"영광의 열매 재배(양산)" 김성준 목사
*봉헌 Offering	새213장(통348) '나의 생명드러나니'(4행) "Take My Life and Let Me Live"	찬양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 Anthem	글로벌이 찬양대 '주의 동산으로'	속도	김성준 목사
성고 Sermon	"교회 사랑" (5대 강령 시리즈) "Love Church" (5 Commandments Series #2) 김현진 목사		
*찬송 Hymn	"우리에게 주원이 하나 있다"		
*속도 Benediction	김혁진 목사		
공동체 소식 Announcements			

(*표는 가능하면 일어나짐 / Stand if able)

올해 하나님은 우리 주제를 주신 피아는 “사랑으로 함께 일어서는 능력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이 영의 교화(성도)가 할 수 있고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아들의 질서(사랑)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함께 이룰 공동체에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는 함께 일어난 수(love)만 있는 것입니다. 성도교회가 그 사랑의 능력의 모습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자들은 영원한 자들이었지만 사랑이 저들에게만 하게 됨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일어난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사사(사)에 등장하는 ‘변인조’라는 전설의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태어날 때부터 잉태된 인본(본)을 가지고 태어날 수가 없는 슬픈 운명입니다. 이 새가 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그 새를 있는 그 자체를 사랑하는 완전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 새는 비영존체를 너무 사랑하여 평생 함께 그 영원에 맞추어 눈이 되어주고 날개가 되어 주어 같이 날아줍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비록 교화와 완전한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신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영약만은 교화는 비록 불완전하나 완전하신 성령의 능력과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 모두가 바라는 2025년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영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믿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명하신 계명의 말씀입니다. 두 종류의 그룹이 이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한 그룹은 그들은 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성령이 없는 그룹이고 다른 한 종류의 그룹은 하나님이시고 영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과 하나님께 주님이십니다. 종교 사도(사)도 불만(사)인 이 그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리(6:37)의 영만 조화를 만들어 말씀과 계명을 찾지켜 보라고 말씀 씁니다. 그(6:37)의 율법 조항은 무엇(사) 더 중요한 것들이 하나(사) 248개(사) 365조항으로 나누어서 지키라고 하는 지를입니다. 그러나 자들은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을 사랑하였고 신성(사)가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의무이고 책임(사)은 사랑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그 안에 없었습니다. 반복되는 종교적 행위만(사) 행하고 지는 사랑은 중요하고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우리 주님과 같은 공동(사)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한(사) 5장 3절은 영년(년)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사)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사) 그의 계명들은 무(무)된 것이 아닙니다(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 하는 믿음(사) 성령이 주(주)입니다. 그리고 사랑(사) 나의 믿음(사)에 따라 주의 말씀과 계명들을 지키는 믿음(사) 기반입니다. 복(복)은 10월(월)의 불(불)의 사랑을 안고 영(영)이 행(행)이 되고 있을 수 있을(사)까요? 단(단)히 무(무)건(건)에 느껴질(사)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10월(월)의 나의 가장 귀한 사랑(사) 받은 사랑(사)을 안고 싶으면 무(무)건(건)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닌(사) 무(무)건(건)도 무(무)건(건)이 있습니다. 왜 그럴(사)까요? 사랑이 내 마음(사) 가운데(사) 있습니다. 결국 사랑(사)을 행하는 것은 무엇(사)인가? 새롭게 되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랑(사)입니다. 사랑의 대상(사)으로 보이는 것이 내가 사랑(사)받(사)고 있다는 뜻(뜻)이라고 말씀(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사)이 주(주)는 은혜(사)입니다. 성령(사)의 첫(첫)째(째)인 사랑(사)이 사랑(사)이 나에게 찾아(사)오(사)야(야) 하나님(사) 사랑을 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사)와 축(축)복(복)이 누(누)정의 모든(모든) 성도(사)의 믿음(사) 가운데(사) 부(부)여(여)지(지)기를 주(주)는 이름(사)으로 축(축)복(복)합니다.